

폭풍 썰는데... 에어컨 판매 '찬바람'

불황속 전기료 인상 예고 전년비 매출 58% ↓

대자리·쿨매트 인기... 제습기 판매는 143% ↑

경기불황 앞에서는 무더위도 소용 없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유례없는 무더위까지 예고됐지만 에어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9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마트 광주점의 에어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지난달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판매 감소의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와 전기요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같은 불황에 가정에서 고가의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데다 최근에 한전이 전기료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가정용 에어컨의 신규 수요가 한계에 달한데다 최근엔 냉방병 등 건강을 생각해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려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해 더위를 덜어주는 제습기가 잘 팔리고 있다. 제습기는 실내 습도를 낮춰 같은 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냉방용품으로 최근 장마까지 겹치면서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서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제습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나 더 많이 팔렸다. 30만~40만원대인 제습기와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전기세를 아끼면서도 비싼 에어컨과 맞먹는 냉방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알뜰 여름상품도 인기다. 광주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광주점에서는 대자리와 쿨매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 가량 많이 팔렸으며 여름용 이불도 같은 기간 매출이 13%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 가정마다 선풍기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풍기 매출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대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냉방효과를 볼 수 있는 제습기가 잘 팔리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고온다습한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장마까지 겹쳐 제습기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걱정 많은 '50대'

연금공단 조사... 노후 관심 54%로 가장 높아

50대가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문을 연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대 비중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0.3% ▲40대 19.2% ▲30대 5.5%

▲20대 1.2% 등의 순이었다고 9일 밝혔다. 141개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 마련된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전 가입자,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관련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행복노후설계센터가 문을 연 뒤 노후설계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교육 횟수도 27% 가량 증가했다. 공단은 연령층에 따라 20~30대는 재무목표 및 가계 예산 수립, 40~50대의 경우 노후자금 준비 방법, 50~60대를 대상으로는 의미 있는 노후 생활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설계 상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141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내 연금(csa.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찬밤 신세 '위스키'

판매 전년비 10% 줄어... 소주 소폭 증가

위스키 시장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 105만9916상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7만8667상자보다 10.1% 감소했다. 1상자는 500ml들이 18병 기준이다. 업체별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주력 제품인 '원저'는 상반기 매출이 4% 감소해 비교적 '선방'했으나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은 14.7%나 떨어졌다. 롯데칠성음의 '스카치블루'도 11.4% 하락했고 하이트진로의 '하이스코트'는 26.6%나 하락했다.

이에 비해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알코올도수 36.5도의 토종 위스키 '골든블루'는 오히려 매출이 두자리수의 신장률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과 수도권을 주요 판매처로 하는 이 제품은 순한 위스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전반적인 위스키 판매량의 감소는 경기 불황 속에서 사회 전반의 유휴 분위기가 위축한 가운데 기업들의 접대 문화도 수그러들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양분하는 맥주시장의 1~4월 출고량은 5218만상자(상



자량 20병)로 작년 같은 기간의 5407만상자보다 3.49% 줄었다. '카스'의 오비맥주가 플라즈마를 보인 데 비해 하이트진로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술'인 소주의 판매는 소폭 늘었다. 1~4월 출고량은 3729만2498상자(상자당 30병)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61만5543상자보다 1.85%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10개 소주업체 가운데 '처음처럼'의 롯데주류와 '좋은데이'의 무학 등의 점유율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광주은행 2012 하반기 신입행원 연수 입교식에 참석한 28명의 신입 행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하반기 신입행원 입교식... 70%가 고졸

KJB광주은행이 2012 하반기 신입행원 28명 중 20명을 광주전남 특성화고 학생들로 선발해 '고졸 인재시대'를 여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9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2012 하반기 신입행원 28명에

대한 연수 입교식을 갖고 광주은행 미래를 책임질 광인인 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신입행원 28명 중 20명이 광주전남 지역 특성화고 출신이다.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010년부터 고졸출신 학생들에게 취업 문을 개방한 후 39명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다. 올해도 광주 전남 31개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 중 20명을 최종 합격 시켰다. 신입직원 연수는 8월말까지 약 8주 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신입행원 양성'을 목표로 CEO 특강, CS

교육, 등 기본 소양교육과 모의창구 실습, 전산실습 등 직무교육과 영업점 현장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기진행장은 "학력이나 영어 점수 등 좋은 스펙을 가진 인재보다 리더십과 예심을 두루 갖춘 인재들이 더욱 필요하다"며 "패기와 열정을 가지면서 청렴한 은행원의 기본자세를 갖춘 은행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땀 안나는 레저용 장갑 나왔다

입체 통풍... 제일에스지 트래킹·골프용 출시

한 여름에도 땀이 나지 않는 스포츠·레저용 장갑이 출시됐다. 스포츠·레저용 글러브 전문 생산업체 제일에스지가 3면 입체 통풍형 'SR30 골프 장갑'과 'SR30 트래킹 장갑'을 개발했다. 'SR30'은 30℃ 날씨에서도 땀(sweat)과 비(rain)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SR30' 시리즈 장갑들은 바닥면에 10개의 '매직 통풍홀'이 있어 30℃ 이상의 더운 날씨에도 땀이 나지 않아 가볍고 쾌적한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다. 또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상황에 더욱 마찰력이 강해지는 원단을 사용해 미끄럼 방지는 물론 물기 제거에도 효과가 뛰어난 장마철 등 곳은 날씨에도 착용감이 뛰어나다. 매직홀 주변은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디자인 처리했으며 냄새 제거와 향균 기능까지 있어 'SR30' 시리즈 장갑들의 재구매율이 높다고 회사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기능성 장갑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골퍼들에게 'SR



30' 시리즈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SR30 시리즈 장갑은 우천용 골프 글러브로도 불린다"며 "바닥면에 사용된 0402원단이 물과 접촉할 경우 마찰력이 3배로 강해지기 때문에 골프 라운딩도중 비가 와도 장갑을 교체하지 않고도 18홀까지 경기를 마무리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주택연금 가입 '경풍'

6월만 385명... 전년보다 57% 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한달간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신규 가입자가 385명(보증공급액 494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입건수는 57.1%, 보증공급액은 43.2% 증

가했다. 올해 5월과 비교하면 가입건수는 19.6%, 보증공급액은 14.0%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입건수도 총 23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1% 증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인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p>전국점망</p> <p>서울: 02-2766-0587~9 부산: 051-889-8800 대구: 053-425-4440 광주: 062-954-4477 전북: 063-225-5110 전남: 061-752-8845</p>	<p>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p> <p>FDA, ISO 9001, CE 0120, GMP</p>	<p>상당전화</p> <p style="font-size: 1.5em;">1588-8499/080-222-0100</p> <p>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p>	<p>공주 권도청기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p> <p>광주 박운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p> <p>순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p>
---	---	--	---